

불교문학 장래 어둡지 않다

고재석 교수 평론집 '숨어있는 황금의 꽃'

"불교가 문학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고재석 교수(동국대 국어교육과)는 최근 펴낸 평론집 <숨어있는 황금의 꽃>(동국대 출판부)에서 현대에 들어 오면서 불교와 문학사이에 단절이 생겼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고전 문학연구에서는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 연구가 많지만, 해방 이후의 문학연구에서는 성과가 극히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절의 연유는 무엇일까. 고 교수는 우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불교와 문학의 지향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찾는다.

"불교와 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유나 욕망 등에서 비롯되는 행동의 세계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 하는 추구 방식에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 예로, 고 교수는 문학을 예속, 명리, 분노 등 번뇌의 세계에서 고통을 겪는 인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만, 불교는 그것이 아무리 예술적인 작품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인간성에 밀착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한 부정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불교문학은 불교와 문학이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문학이다. 즉 성과 속이라는 대극적인 지향이 엇갈리

불교의 사유 문학의 형상화 둘 아닌 하나로

는 가운데 성립하는 역설적인 문학이 불교문학이라는 것이다.

<님의 침묵>이 훌륭한 문학으로 평가되는 것도 불교문학이면서 불교문학이 아니고, 불교문학이 아니면서 불교문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학과 불교 또는 사유와 형상화의 차원을 하나 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차원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란 것의 그의 논리이다.

고 교수는 또 다른 이유로, 문자를 보는 관점을 들고 있다. 스님들은 탁월한 문장가이면서 문학적 행위를 부정하고, 작가들은 불교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는 언제나 문학의 주변에서 떠돌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 교수는 "문학과 불교는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들은 차원을 달리하고 역설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나란히 걸어왔고 앞으로도 함



게 할 것이다"며 "불교문학은 자아확립이 대립되는 이율배반의 관계 속에서 피면서 지고 지면서 피는 황금의 꽃이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문학은 아직도 자리잡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앞서 고 교수는, 불교는 과연 이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했는가하고 되묻는다. 그리고 그랬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단지 불교계는 침체된 국면을 회복하고 우월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분주했을 뿐, 국민들 내면 세계와 정신 문화를 재신하려는 의욕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불교는 많은 신도 수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종교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것이 문학평론가로서의 경고이다.

고 교수는 "불교문학은 괴롭고도 즐



거운 화두이다"며 "어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한다면 불교문학의 장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럽게 앞날을 전망한다.

이밖에도 이 책은 만해스님의 문학, 1910년대 문학과 작가, 현대문학 작품론을 실고 있다. 값 1만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청공스님 어록집 나왔다



운제스님 번역
상당범어·산거시등 수록

한국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 스님에게 법을 전한 중국 입제정맥의 18대 적손 석공청공스님(1272~1352)의 어록집이 번역 출간됐다.

불교진흥추진위원회가 역대고승서사리 9권째로 나온 <석공청공선사어록>은 지난해 열반한 운제스님이 98년 번역한 것으로 <만속장경>(전 81권)중 '중국산술선종어록집' 편에 실린 석공청공선사의 어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석공스님이 찬하고, 그의 문도 지유스님 등이 엮은 이 책은, 상·하 두권이다. 상권은 가흥부 복원선사에서 주지로 있을 당시의 상당범어, 결계법어 등의 어록을 실고 있으며, 하권은 천호암에서의 산거시, 오인율시, 칠연필구, 계한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 사명연선사 원옥스님이 지은 '복원석공청공선사탑명' 등도 덧붙여져 있다.

회계사 조실 송산스님은 서문에서 "이 책은 한국 선불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청공선사는 입제종 호구파로 그 법은 고려말의 고승 백운 경한과 태고 보우국사 등으로 이어져 고려에서 꽃을 피웠다"고 말했다. 값 1만원.

만화로 읽는 고승전기



정수일씨 '왕눈이 스님'
언기스님 일대기 조명

고승의 전기는 불교사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높이 평가될 대목이다. 철저한 무소유와 수행으로 한 시대의 정신사를 이끌었던 고승들의 삶을 통해 나름대로의 삶과 신행의 좌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승의 전기를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화 <왕눈이 스님>(운주사)은 그러한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는 만화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운주사가 펴내는 고승열전 시리즈 가운데 첫번째 권으로,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흐름을 계승한 평양 언기선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선승으로서 오도의 경지를 체험하고, 대강백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스님의 생애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는 <왕눈이 스님>에 이어, 원효·서산대사 등의 일대기를 다룬 고승열전시리즈를 펴낼 계획이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세계종교입문시리즈 5권 발간

시공사 삼발라총서

중동지역의 문명을 다루는 데,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빼놓을 수 없다. 이차 열종교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고, 각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계의 종교를 읽기 쉽게 소개한 '삼발라총서'가 시공사에서 나왔다. 세계종교입문시리즈인 삼발라 총서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등의 주요 종교와, 널리 알려진 소수 종교를 소개하고 있다. 각 종교마다

다 참사자, 대표 경전과 성인, 기도문과 명상사 등을 두루 다루고 있는 이 총서는, 세계 종교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자세하게 구성돼 있다.

모두 20권으로 출간될 총서 가운데 이번 나온 책은, <노자와 도덕경>, <바가바드 기타>, <탈무드>, <조로아스터>, <공자의 논어> 등 5권이다. 올해 말까지 <미라래부의 십만승>(전2권), <티벳 사자의 서>, <열자>, <마호메트>, <우파니샤드> 등을 펴낼 계획이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해외신간

▲불성(베스 니스커 지음)=부처님은 "우리가 삶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몸 안에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마음은 대부분 몸에서 떨어져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증전각가 베스 니스커(Wes Nisker)는 <불성(Buddha's Nature: A Practical Guide to Discovering Your Place in the Cosmos)>을 통해 몸에 대한 우리의 앎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니스커는 이 책에서 '마음 챙김'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들이 직접 실천수행에 응용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에 담겨있는 열정과 집착 등을 바로 보고 몸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깨달음의 여정에 필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Bentam Doubleday Dell Pub. ISBN 3553379992

▲위대한 동족의 태양(조암 트링과 린포체 지음)= 새로운 사회공동체에 걸맞는 '지각의 길'은 무엇일까. 미국 티벳



교회의 정신적 지도자 조암 트링과 린포체가 뉴밀레니엄 시대의 불자상과 수행의 길을 제시한 <위대한 동족의 태양(Great Eastern Sun: The Wisdom of Shambhala)>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삼발라 전사(戰士)는 탐욕과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내면에서 움크리고 있는 선(善), 즉 불성을 발견하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족의 태양으로 표현된 불성은 버림 끝에 서있는 현대인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인 셈이다. '삼발라 전사(Shambhala Warriors)'는 티벳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Shambhala Pubns. ISBN 1570622930

▲일처럼 수행처럼(루이스 리치몬드 지음)= 일터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싶은 불자들이 읽어볼만한 <일처럼 수행처럼(Work As a Spiritual Practice: A Practical Buddhist Approach to Inner Growth and Satisfaction on the Job)>이 발간됐다. 미국인 법사 루이스 리치몬드가 펴낸 이 책은 경쟁적이고 혼란스러운 일터의 환경에서도 신심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명상으로 일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을 '영감→수용→환기'의 순환고리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리치몬드는 스테디셀러 <기슭이 사라진 호수(Lake of No Shore)>의 저자로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본불교계 고승 스즈키 모치에게서 수계를 받았다.

Bentam Doubleday Dell Pub. ISBN 076902335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nia.com)

관악산 인근 문화제

김영현씨 '관악의 역사...'

관악지역의 유적과 역사를 소개한 책이 나왔다. 이 지역에서 12대째 사는 향토사학자 김영현씨가 수년에 걸친 꾸준한 탐사와 관련 고문헌 조사를 통해 <관악의 역사를 찾아서>(에사랑)를 펴낸 것이다.

옛날부터 풍수지리적으로 화산(火山)의 이 미지로 알려져 온 관악산은 고구려 시대 475년 '임벌노현'으로 시작해 조선 정조때는 '시흥현'으로 불렸다.

이 책은 감감한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사당동 신라토기 가마터, 조선시대 봉천동 선각마을, 안양 초중사지, 통일신라 당간지주 등 관악산 근처 문화재의 현황과 관련된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관악산 일대를 답사하던 중 시흥동 삼성산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산성의 인공 석축 연못인 '현우물'을 발견, 이를 서울대 박물관에 제보해 사적 제247호로 지정되게 한 이야기 등 남다른 문화재 사랑을 글로 표현했다. 또 관악산 유적과 유물의 현장 사진 1백여 컷을 부록으로 실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관악산에 담겨있는 수천년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값 1만원. 오종욱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익시이엔 집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화-해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오무막 편지	법정	이레
3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	효림
4	금강경 강해	김용욱	통나무
5	노자와 21세기(하)	김용욱	통나무
6	오계이야기	일타	효림
7	부처님께 재를 달면	스티븐미켈	여시아문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타	불교시대사
9	원효어록 100선	이영일	불교진흥사
10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도서 안내: (02)737-0695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8년간 2천여명 졸업·41기생 모집중>

- 1. 강의시간 3월 2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 2.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법배의식(법현스님) 특강(동·히계 스님)법배의식 교육

1학년	2학기(12주)	3학기(12주)
1학기(16주)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유식사상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상용 의식	◇선사상 ◇중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구사론(아비달마) ◇불교상용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2학기(12주)
	◇부파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사회학 ◇기신론 강해 ◇우리말 불교의식	◇법화경의 이해 ◇반야사상과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이해 ◇화엄사상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3. 교수진 권관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이봉순박사, 김호성박사, 권오성박사, 법현스님(동국대), 김은희박사, 박경준박사

초빙강사 원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중(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9일까지 (본대학 사무과) *수시접수가음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운사 (0371)742-2701
▶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385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우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방자치체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면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임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6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대), 02737-0090(후)